

Club Story



대덕 한빛교회 어와나

대덕한빛교회 어와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과 신나고 즐겁운 어와나를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향기를 내리는 성경암송을 통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덕한빛교회 어와나는 불티단과 티엔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불티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이고 티엔티는 저녁 7시부터입니다.

저는 대덕한빛교회 어와나를 맡은 박병민 전도사입니다. 올해 우리 대덕한빛교회에 부임하면서 어와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생소했던 그 이름 어!와!나!

처음 맡으면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도대체 머하는거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이름을 처음 접했고, 또, 맡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와나를 알아갈수록 ‘아~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덕한빛교회 어와나는 2005년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와나를 통해서 어린친구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또, 재밌는 게임을 통해 신체운동과 발달을 할 수 있다는게 너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말씀이 약해져가는 시대인데 어와나에서는 말씀 암송을 우선시 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와나의 7살 친구들로부터 6학년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그 초롱초롱한 눈빛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어린 친구들에 모습과 열심히 암송하는 모습은, 제 자신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는 전도사라고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말씀 앞에 올바로 서있어야 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와나가 시작되는 금요일이면 말씀을 준비하며 꼭~ 말씀을 하나씩 암송하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우리 대덕한빛교회 어와나는 평범한(?) 어와나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게임을 철저히 해서 게임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말씀 암송을 강하게 시켜서, 성경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좋아하고 웃을 수 있는, 단지 몇 명의 친구만이 웃을 수 있는 어와나가 아니라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웃고, 즐거울 수 있는 어와나입니다. 뿐만아니라 말씀암송을 통해 그 말씀이 어린 친구들 삶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 암송이 되길 소원하며 선생님 한분 한분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가족 여러분,
대덕한빛교회 어와나의 모든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안에서 언제까지나 신나고 즐거운 어와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어와나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 날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